

8/23/15

설교 제목: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전하는 이 : 김순배 강도사

말씀: 민수기 21:4-9, 요한복음 3:14-16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2 주에 걸쳐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땅 따먹기' 놀이 기억하시죠?

서로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시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핏대를 올리며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저녁노을이 지면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밥 먹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핏대를 올리며 따먹었던 땅을 미련없이 버려두고 다들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게임을 통해 우리가 이땅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이 땅따먹기 게임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이세상에서 하던 땅따먹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대로 두 갈래 길,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이웃으로 같이 사니 저 세상에서도 같은 곳으로 가서 같이 살게 되겠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일단 가면 절대로 돌아 올 수도 서로 왕래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옥은 유향 불이 타오르고 구더기가 우굴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여지옥에 있는 부자가 너무나 뜨겁고 목이 말라 상황 파악 못하고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시켜 물 한방울을 손가락에 찍어다 자신에게 가져다 주게 하라고 애걸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차리고 제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이 다 평온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며 평소와 다름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슬피 울고 이를 갈며 통곡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인 요한 복음 3 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이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 온 이유를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찾아 온 이유를 확실히 꺼내 놓기도 전에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인 요한 복음 3:14-16 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한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뚱맞게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 들으리라 아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지 40 년이 넘었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을 가려면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에돔 땅을 거쳐 가면 지름길인데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그 땅을 점령이라도 해서 질러 갔으면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점령하지 말고 돌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가로 지르지 않고 우회하여 가자니 힘도 들고 마음도 상해 있었습니다.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이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 년 동안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르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어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던 그 때의 감격과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또 시작하는구나!"하며 진노하십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은 사례가 있었는데 우둔한 이들이 또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민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 사는 이 불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뱀입니다.

누구든지 이 뱀에 물리면 거의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했으며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꼭 죽게 되어야 회개를 합니다.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책을 주십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다시 요한 복음 3 장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 온 랍비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불뱀은 죄를 가르킵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와라'라고 말한 것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모든 경우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죄에 오염된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듯이 죄에 오염된 모든 자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비책으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한마리 잡아다가 죽여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놋으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을까요?

놋으로 만든 불뱀의 형상은 바로 죄는 없으시되 죄인인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롬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눗뱀은 비록 뱀의 형상이었지만 뱀은 아닙니다.

눗뱀이 비록 뱀의 형상이지만 뱀이 아니듯이 주님은 비록 죄인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눗뱀을 통해서 보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리신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눗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높이 들리셨습니다.

왜요?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눗뱀을 쳐다보고 나음을 얻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 들었을 때 누구나 그 뱀을 쳐다 보기만 하면 살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 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었던 비책은 오직 한가지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상식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이런 저런 약초를 구해 발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의 소견이나 상식 지식 등을 더 신뢰하여 그런 비책을 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을 발라야지 그까짓 놋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 본다고 이렇게 위중한 상처가 치유되겠느냐고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살아 났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에게 주시는 비책은 단 한가지 놋뱀을 장대에 달은 후 그것을 쳐다 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책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떠들어 댁니다.

미혹 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참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심판받을 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